

# *The Sunshine in Sri Lanka*



1th Monthly Report  
4.March.11~31.March.11

# Contents

- 라온아띠 5기, 스리랑카 팀원 소개
- 3월 스케줄 달력
- 정규 프로그램
  - 1) 나무 물주기 & 라온아띠 가든
  - 2) 허벌 프린크
  - 3) Children Club & Youth Club
  - 4) Children Club 태권도 수업
  - 5) 강가의 아이들
- 3월 우리의 생활
  - 1) 우리가 사는 작은 곳
  - 2) 우리가 하는 것
  - 3) 우리가 먹는 것
  - 4) 우리와 사는 것 & 쓰는 법
  - 5) 우리가 사는 큰 곳
- 특별 프로그램
  - 1) Recycle Bin 프로젝트





나 이지훈.

철학과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22살 대학생.

지금은 스리랑카에서 사유티  
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신기한 외국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롭고  
싶은 청춘.

그 청춘을 눈부시고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난 지금  
이 자리에서 있다.

세상아, 안녕.



소라가 스리랑카에 왔다.

나의 이름은 **Rashmi** (랏슈미) 의미는 **sunshine** 이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받을 수 있을 줄이야.~~!!!

이제는 소라라는 이름이 어색할 정도이다.

배소라는 88년생 24살 한국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항상 좋은 선생님, 선생님 다운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기 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겠다

라고 깨닫고 이곳 스리랑카에 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소라는 랏슈미로 다시 태워났고 새로운 5개월의 새로운 일상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스리랑카 사람이되어서 가겠다.



## 김진경

이곳에서의 내 이름은 **Dedunu**, 25살.  
모라투와 YMCA에서 싱할라어를 공부하고 스리랑카 문화를 경험해보고 있는 학생. 여기온지 한 달이나 되었지만 아직 스리랑카 적응기를 거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치위생을 전공했지만 여기서 치아 관련 얘기는 하나도 못해봤다.  
이 곳 모라투와에서 가장 좋은 건 뜨거운 햇볕아래서 활짝 웃을 수 있고 미지근한 코코넛 주스를 배불리 마실 수 있다는 것.



## Who am I?-the name

한국에서 나는 전경극이라 불렸다. 그렇다. 내 이름은 전경극 '이었다'. 또한, 내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흔히 '서울대 다니는 학생'으로 불렀다. 그렇다. 나는 '대학생 전경극'이었다. 누군가 나를 '경극아'라고 부르면, 수많은 사람 중 나 혼자만 대답했다. 나는 전경극이었다.

여기서는 누구도 날 전경극이라 불러주지 않는다. 이곳에서 나는 Chamara이다. 매력적인 남자라는 뜻이다. 그들은 한눈에 이름의 의미와 나의 모습이 어이없음을 알고 웃는다. 내가 한국에서 뭘 했고 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냥 여기서 그들에게 'Chamara Aiya'이다. 여기서 그들과 나는 Chamara라는 이름을 매개체로 서로를 알아간다. 내 짧은 싱할라 실력으로 이름을 소개하면, 어느 새 나와 그들은 같은 눈높이로 이야기를 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잘났다면 그들도 잘난 사람들이고, 내가 못났다면 그들도 못난 사람들이다. 그렇다. 나는 그들과 '똑 같은' 사람이다



# Who are you?

1. 한국 이름은 뭐냐?

문보성

2. 스리랑카에서는?

ARUNA~!! 그 의미는 찬란한 아침 햇살~! ㅎㅎ

3. 그래? 몇 년생이야?

1988.8.27 스물 넷  $\pi\pi$

4. 한국에서는 어디 살아?

수원 산다, 호매실동이라고 들어는 봤는가?

5. 아 그 시골동네, 그래 뭐하고 살았어?

대학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6. 전공은 뭔데?

1전공은 체육학이고 2전공은 미디어학.

7. 특기는 뭐야?

축구, 초등 4학년부터 고등 1학년 까지 축구선수를 목표로했지만 진로 변경.

8. 취미는 뭐야?

각종 스포츠 활동, 여행, 생각 옮겨 적기, 사진-영상 촬영.

9. 스리랑카에는 왜 갔어?

나는 스펙 쌓기라는 현실에 얽매어 사는 게 싫어졌어. 정말 이런 활동도 스펙일 뿐 인가하는 괴리감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고 그걸 타파 하기 위해 스리랑카에 왔지.

10. 그래서 한 달 됐는데 어때?

궁금해? 직접 경험해봐~! 확실한 건 이런 활동이 스펙이라는 보잘 것 없는 단어에 수식 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야!!

11. 스리랑카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YMCA 다따가 만들어준 기리 띠(밀크 티)

12. 많은 생각을 해봤군, 그래 네 인생의 역할모델은 누구야?

부모님.

13. 마지막으로 무슨 꿈을 꿨?

즐거운 가족.



# MARCH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 스리랑카 도착	4 Welcome Ceremony	5 정은범 선교사님과의 만남 / Godfrey와 저녁	6 Mr. Nimal 집에서의 아침 Air Force Exhibition
7 강가의 아이들	8 싱할라 수업 모라투와 투어	9 콜롬보 투어! Mount Lavinia Beach 고고	10 목공소 견학 / 밤블라삐띠야 투어	11 Children Club / 한국어 수업	12 태권도 수업	13 자유 시간
14 강가의 아이들	15 Committee Meeting / Herbal Drink 준비	16 Herbal Drink Project / 비자연장 Youth Club	17 Concrete Rings 디자인하기 / 라온아띠 가든 치우기	18 라온아띠 가든 완성! Children Club	19 베드민턴 토너먼트 구경	20 자유 시간
21 강가의 아이들 / Committee Meeting	22 요양원 견학 / Herbal Drink 준비	23 Herbal Drink Project / Youth Club	24 LOGOS SHIP 방문! Children Club 태권도 보충수업	25 목공소 방문 기차역 방문 Children Club 한국어 수업	26 Godfrey와 천주교 교회 행사 참여	27 Ashoka 교회의 행사 참여
28 강가의 아이들 Committee Meeting	29 목공소 일하기1 / Herbal Drink 준비	30 Herbal Drink Project / Youth Club	31 목공소 일하기2 Youth Club 태권도 첫 수업			



3월 라온아띠  
언니오빠는요

## Managing the trees&Raonatti garden

이 프로그램은 라온아띠 5기 스리랑카팀이 모라투와 YMCA로 매일 8시 30분에 출근하여 매일 진행하고 있는 정규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라온아띠'라는 이름을 걸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1. 가로수 관리

모라투와 YMCA가 위치한 Moratuwa main street, Galle road 혹은 Gold road라 불리는 큰 길에 라온아띠의 이름이 걸린 30그루 정도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라온아띠 4기가 설치한 대나무 보호틀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나무들에 물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라온아띠 5기에 와서는 대나무 틀을 콘크리트 링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도하려 하고 있고, 3월말 현재 콘크리트 링이 도착하여 이를 도색하고 글씨를 입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라온아띠들의 피드백을 통해 쓰레기를 줍는 작업 또한 새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라온아띠 가든

모라투와 YMCA 1층 강당 뒤편에는 작은 마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라온아띠 4기가 귀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정원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시도하였고, 이것을 라온아띠 5기가 받아 가든을 만들었습니다.

라온아띠 가든을 만드는 상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처음에 라온아띠 5기는 가든을 만들기 위해 대나무를 잘라 화단을 만들, 코코넛 줄기를 바닥에 깔아 틀을 잡고, 그 위에 화학비료와 흙을 섞어 배합토를 만들어 화단에 뿌리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물도 주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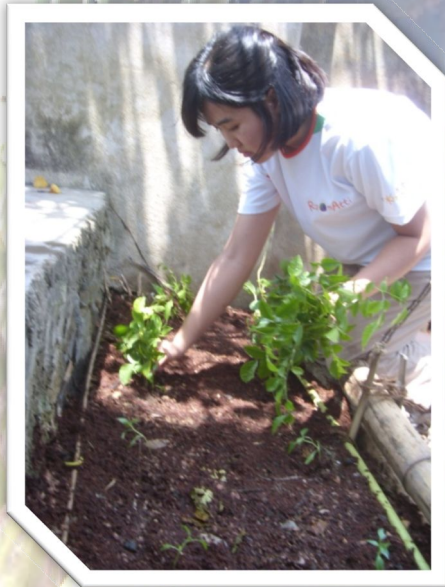


그 다음, 우리 라온아띠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 2개와 작은 원형 화단 4개가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고추, 콩, 채소 등의 식물을 심어놓았습니다.





식물들이 어린 경우, 강렬한 태양을 받게 되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원래 심은 식물보다 약간 큰 크기의 나뭇가지들을 꽂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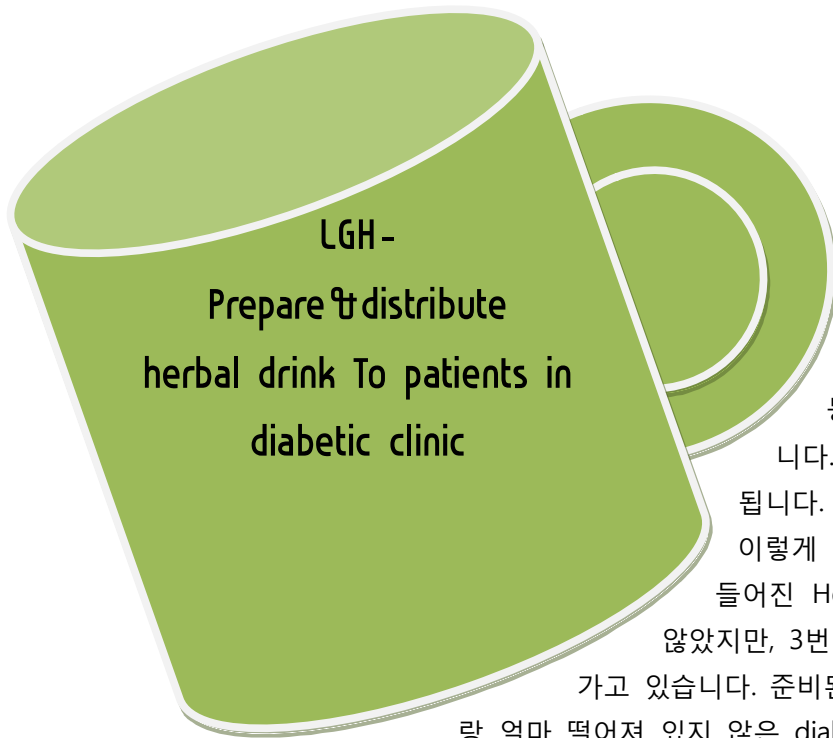
그리고, 라온아띠 5기는 현재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기쁨을 맛보는 중입니다.^^



### 3. 라온아띠의 한마디

이 프로그램은 라온아띠와 모라투와 YMCA가 지역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환경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지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학문에서 sustainability, 즉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중요하게 쓰이고 있고, 특히 환경과학 분야에서는 각종 기후협약의 내용을 필두로 이 개념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스리랑카의 작은 도시, 모라투와에서의 라온아띠들의 이러한 작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스리랑카, 더 나아가 아시아 전역의 환경개선사업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Herbal drink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하여 일주일에 한번 당뇨병에게 좋은 건강 식 음료를 나눠주는 활동 입니다.

Herbal drink에는 몇 가지의 식물 잎 과 소금, 코코넛, 생강, 마늘, red rice, 등을 갈고, 체에 받쳐서 생긴 물을 끓입니다. 활동은 수요일 오전6시 30분부터 시작 됩니다. 당일은 평소보다 많이 일찍 일어납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저희 팀이 참여합니다. 만들어진 Herbal drink는 처음에는 제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3번 정도 마셔 보면 그 매력을 조금씩 알아

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Herbal drink를 가지고 모라투와 ymca 랑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diabetic clinic에 가지고 갑니다. 스리랑카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받은 치료는 완전 무료입니다. 병원에 오면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저희는 "콜라 켄느 본느, 코프 게니안느 에빠 ," "아빠 모라투와 ymca 에깅" 를 외치면서 Herbal drink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ymca에서 저희한테 외치라고 알려주신 말인데, "콜라켄느 마시세요. 컵은 돌려주세요." "저희는 모라투와 ymca에서 왔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저희가 조금씩 준비한 신할라어로 헤민본느(천천히 마시세요), 혹은 호디 사니뵙 인너와(건강하세요)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역할에는 뜨거운 Herbal drink를 나눠줄 2명과 컵이 모자라기에 그때그때 씻을 사람 1명, 그리고 다 마신 컵과 씻을 컵을 운반한 2명이 사진 촬영과 앞의 문장을 외칩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 분들이 저희를 보고 웃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프기니안느 예뻐"라고 말하면 웃으시면서 따라 하신답니다. 왜 웃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저희들이 사람들이 이상한 억양으로 말을 해서 그런지, 아님 손자 같은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웃어주시기에 저희는 항상 힘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하는 활동이지만, 끝나면 다들 상쾌해 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කුලා කේන් බන්,  
කො~ප් කේනියාන් ඒජ්ජ!

# Children Club & Youth Club

YMCA 모라투와에 처음 도착해서, Welcome ceremony가 있던 날...  
Welcome ceremony내내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눈망울로  
저희를 바라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Children Club과 Youth Club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리랑카에 아직은 낯설었던 우리를 오랜 친구처럼 반겨주었던  
아름다운 사람들. 우린 이렇게 그 사람들과 5개월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

Children Club과 Youth Club은 YMCA 모라투와 소속으로서  
Children Club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Youth Club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으로 각각 문화 증진을 위한 활동, 지역 공동체를 바꾸기 위한 활동,  
교육 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랑카팀 5기는 일주일에 한번씩  
Children Club과 Youth Club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Children club과 Youth Club은 저희 라온아띠팀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를 들어 Children Club에 있는 아이들과는 소풍도 가고,  
태권도 수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만나자마자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날 때마다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놀자고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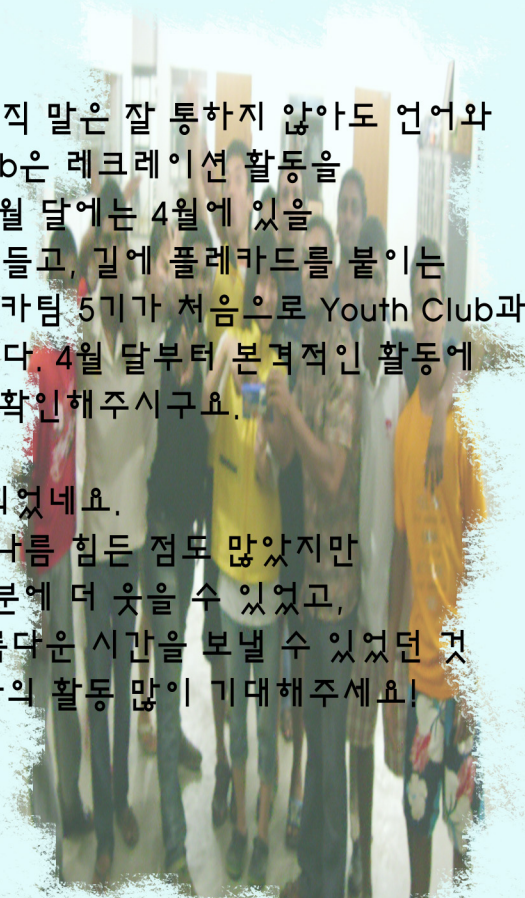
Youth Club또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무한한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 쉽게 친해질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나든 공감의 세계에 빠질 때가 많답니다! Youth Club은 레크레이션 활동을

결들인교육 활동도 많이 하구요. 3월 달에는 4월에 있을  
헌혈 캠페인 때문에 팜플렛을 만들고, 길에 플레카드를 붙이는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또 저희 랑카팀 5기가 처음으로 Youth Club과  
태권도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월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니 4월 보고서를 꼭 확인해주시구요.

스리랑카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첫 번째 달이라 사건사고도 많고 나름 힘든 점도 많았지만  
Children Club과 Youth Club덕분에 더 웃을 수 있었고,  
더 힘낼 수 있었고, 더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두 Club과의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 태권도 활동

먼저~! 스트레칭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투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 발차기 준비! 아얏! 하얏~! 이 소리는 모라투와 YMCA 태권도 시간에 흘러나오는 태기 넘치는 기합소리입니다.



전경극 단원



문보성 단원

안녕하세요~! 3월 달 보고서, 태권도 부분은 맡은 ARUNA입니다~! 실제 이름은 문보성 이고요 ARUNA는 저의 싱할라어 이름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ㅋㅋ.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즐겁고 유쾌한 저희들의 태권도 활동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Children Club, Youth Club, Angulana Club 총 3개의 태권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먼저 Children Club 태권도 활동은 2기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반이 잘 잡혀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Youth Club 태권도 활동입니다. Youth Club은 16세부터 33세까지 연령이 다양하며 5기 때 처음 시작한 활동입니다.



Children Club

마지막은 앙골라나 태권도 활동인데요. 저희들의 본거지인 모라투라 시에서 조금 떨어진 앙골라나 마을에서 활동을 합니다. 주로 아이들과 어머님들 활동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한 소개였고요. 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Children Club 태권도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Children Club 멤버는 아누쉬, 샤센, 하세, S. 싸똥, 니샤드, 리레쉬, 샤밋, 다누시커, B싸똥, 네마샤, 프라그피, 아밀리, 게안리 13명입니다.

아누쉬는 Children Club 태권도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리더답게 아이들의 질서를 정연하게 하고 소란스럽지 않게 큰형 노릇을 합니다^^ 순발력, 힘, 정확성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품새 5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샤센, 하세, S싸똥은 품새 4장을 배우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좋아지고 있으며 특히 발차기 응용력이 좋아서 하나를 가르쳐 놓으면 다른 발차기와 연계하여 동작을 취할 줄 압니다. 그리고 품새 4장을 배우야 할 니샤드는 지금 팔꿈치를 다친 상태라서 아쉽게도 3주 째 태권도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요. 빨리 나아서 다음 달 보고서에는 니샤드의 활동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리레쉬와 샤밋은 품새 3장을 배우고 있고 주먹 지르기나 막기 응용력이 좋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다면 앞꿈치와 뒷꿈치 같은 발 동작이 자연스럽게 못하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스스로 반복 연습을 통해 좋은 자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누시커와 B.싸똥 그리고 새로 들어온 아밀리, 게



Children Club





안리는 태권도를 배운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려는 의욕이 좋아서 한 달 만에 품새 1장과 2장을 배우고 기본 동작인 주먹 지르기라 막기 능력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Children Club의 귀염둥이 쌍둥이 자매 네마샤와 프라그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는 자세와 많은 연습량으로 품새 1장을 배우고 기본동작 또한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태권도 활동을 위해 도복을 입고 이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제가 본 아이들의 눈 빛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강렬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타국의 아이들이 태권도를 알면 얼마나 알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느냐'는 저의 무심한 마음이 창피하고 잘못됐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태권도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싱할라어, 배우려는 의지 등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5개월 동안 태권도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그 다음 소개할 활동은 Youth Club 태권도 활동입니다. Youth Club 태권도 활동을 저희 기수가 처음 시작한 활동이며 이제 막 첫 번째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 Youth Club 멤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보라는 제안을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받았을 때 저희 팀은 많은



Children Club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나누었지요~!

연령이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나 제 멋대로 굴지 않든지 혹은 태권도 활동을 하고 싶은 목적이 우리 팀의 여자 멤버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하는 의견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걱정과 우려, 기대가 교차한 끝에 한번 해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첫 활동을 하고 나서 우리가 했던 우려와 걱정은 '괜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Youth Club 멤버들은 태권도를 가르치는 우리들의 말을 잘 들어줬고 진지한 태도로 활동에 임했습니다.

이제 첫 활동이었기 때문에 기본 동작 밖에 하지 않았지만 성인이고 무술을 배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어서 금방 실력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마지막은 앙굴라나 태권도 활동입니다. 앙굴라나 태권도 활동은 모라투라 YMCA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태권도 보다는 간단한 신체활동을 주로 합니다.

그런 이유로 앙굴라나 태권도 활동은 체계적이거나 연락망이 잘 되어있지 않아서 태권도가 향상 되는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기수에서부터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 동작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들 뿐입니다.

이제 막 첫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태권도를 가르치지 않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과 간단한 태권도 동작을 시범 보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이날 태권도를 시

범 보이다가 제 바지 가랑이가 뜯어지는 해프닝이 있었답니다. TTTT

ㅎㅎㅎ 어떠셨나요!? 이제 첫 월말 보고서이기 때문에 재미 있는 내용의 글 보다는 주로 소개 글을 썼는데 앞으로 재미있는 활동 내용이 있을 테니 기대하세요^^

REPLY

## Digorollar Garden(강가의 아이들)

### Digorollar Garden(강가의 아이들)이란?

강가 주변 빈민촌 지역에 가서, 집안 형편상 학교에 다닐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번 수학, 영어, 미술 등의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현지코디네이터 아쇼카와 Moratuwa YMCA에 근무하는 와루니, Children Club학생인 다루쉬가 주로 가르치고, 우리 팀은 보조교사의 역할이다. 서너살에서 부터 중학교에 다닐만한 나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있다.



전기수의 보고서에서 이 곳의 주위환경이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한 곳이었다. 사진에 종종 등장하던, 커다란 나무 밑 공간에 이르기위해서는 어른 한명이 간신히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길을 지나야한다. 판자집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가 길 사이사이에 흐르고, 쓰레기로 가득차있어 항상 퀴퀴한 냄새가 나고 파리 ,모기등이 굉장히 많다.

강변에도 역시 쓰레기가 가득 떠있고, 나무밑에는 진흙이 얇게 퇴적되어 있어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물이 넘쳐서 교실로 쓸 수 없다. 그래도 우리반 아이들은 조그만 나무 의자위에 조로록 앉아서 발을 흔들면서 공부하곤한다. 가끔 발을 흔드는 리듬이 맞지 않아 나무 의자가 엷어지면 우와와악 소리를 내면서 뛰어내리는데 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수업 흐름이 깨져도 그냥 웃게된다. ㅋㅋㅋ

내가 맡은 역할은 아쇼카 선생님(남 35세, 스리랑카 팀 5기 코디네이터, 쿵푸팬더 몸매)의 보조로서, 10-13살 사이들의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

수학시간에는 보통 두자리수 이상의 4칙연산을 하고 알파벳 대문자를 보면서 ABC노래를 부를 수 있다. 내가 어렸을 적과 마찬가지로 수학 문제 풀기를 싫어하고 장난이 심하다. 한참 성장기의 아이들이라 장난칠 때 맞으면 정말로 헉 소리 나게 아프다. 아직 내가 싱할라어가 서툴러서 '아파! 아파!'하고 한국말로 하면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더 때린다-\_-;;

하지만 이 안에서도 알파벳을 줄줄줄 잘 읽는 아이가 있는 반면, 17+5 같은 두자리수 덧셈을 시켜도 손가락으로 암산하는 아이가 있다-\_-;; 53+18 시켜봤는데 그걸 정말로 손가락으로 다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 끈기에 오히려 감탄하게 된다. 답은 틀리게 나왔지만ㅋㅋ(손가락으로 해도 틀리면 어떡하라고!!!!)

가끔 아이들이 내 주머니나 가방을 뒤져서 몰래 물건을 빼내가곤 한다. 여자아이들은 내 머리핀이나 펜을 달라고 끈질기게 조른다. 안된다고 해도 아쇼카 눈치를 슬슬 보면서 막무가내로 매달린다. 게다가 나이에 비해 집중하는 시간이 극도로 짧아서 매 수업마다 흥미위주의 아이টে임을 생각하느라 힘들다. 소라가 말하길 자라온 환경 때문에 따라할만한 역할 모델이 없어서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 소라가 역시 교육을 전공한 사람답게 찬찬히 잘 도와준다)

한번은 수학 시험지대신, 4칙연산을 활용해볼 수 있는 시장놀이를 준비해갔다. 부루마블처럼 즐겁게 수학문제를 풀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게임이 시작한지 5분도 되지 않아 서로 돈을 빼앗고 소리를 지르고, 덩치 큰 남자아이들은 싸움을 시작해서 아쇼카가 간신히 떼어놓았다. 화가난 아쇼카가 바로 게임을 중단하고 오늘은 더 이상 수업 안할거라고 했다. 눈도 부리부리한 아쇼카가 더욱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지르니 나도 무서워졌는데, 아쇼카가 등을 돌리자마자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매달린다. 휘적휘적 걷던 아쇼카가 5초도 되지않아 뒤돌더니 그럼 앞으로 말 잘 들으라고 한다. 그 엄청난 연기력에 나도 아이들도 너무 쉽게 속아버렸다. ㅎㅎ

가끔씩 너무 말을 안들어서 아이들이 밉기도 하지만, 장난기가 그득한 눈을 보면 그냥 맘이 풀어진다. 약취가 진동한다고, 아이들이 어깨가 흰히 드러나는 늘어진 옷을 입고 있다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고 조금해하는 것은 나 뿐이다. 가끔은 이런 내 모습에 팀원들이 아이들에게 목표를 부여하지 말라고 그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하라고 한다. 처음에는 이런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한달여가 지난 지금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 단시간에 모든 것을 바꾸려하면 안되는데 어느 새 나는 그 말을 잊고있었다. 국내훈련 때 수도없이 들었던 말 **'현지를 변화시키려 하지마라'**.

아이들이 보기에 나는 그저 일주일에 한번 보는 누나일 뿐이다. 싱할라어도 서툰고 조금만 열받으면 한국말로 뭐라뭐라하고, 어려운 수학문제나 갖다주면서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는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정말 이곳에서 이 사실을 몸으로 배우고 있다.



↑ Digorolla garden 첫째날, 몸풀기로 손밀기놀이 시작~ 아이들이지만 팔힘은 정말 세다!!



↑ 게임 초반은 평화로웠지만 그 끝은 참담했다. 정말 말리기 힘든 몸싸움 TTT



↑유아반을 맡고있는 라슈미,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방이라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나면 땀으로 목욕하곤 한다 ㅋㅋ



↑영어 전문 회화반  
학생은 적지만 가장 열의있다!!!



↑싱할라로 구구단 외우기!!  
아이들이 너무 빨리 외우면 내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없다ㅠㅠ



↑수업이 끝나면 맛있는 과자로 마무리!!  
오늘도 참 잘했어요~ ㅋ

**To. 루완차마르, 세안잔디거, 그아얀, 이레샤, 다누쉬꺼, 루칸더, 피영크, 두란젤리, 이스루, 딜샤에게**

누나가 재밌게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번주에는 좀 색다른 걸 해보자. 남은 시간동안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고 즐겁게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해볼게.



# 그들이 사는 세상

안녕하세요!! 랑카팀 5기의 이지윤입니다! **스리랑카**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마냥 신기했던 것들이 어느새 벌써 일상이 되고 저의 일부가 되었답니다.

저는 저희 팀이 스리랑카에서 **어떤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희는 스리랑카에서 큰 도시에 속하는 **모라투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모라투와 YMCA로 출근을 하구요.

저희 집은 YMCA에서 걸어서 약 2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맨 처음에 **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저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출국 전에 사진으로 한 번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방은 총 3개로 조그마한 방 하나는 건조대를 갖다 놔서 저희가 빨래방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2개의 방은 각각 여자방, 남자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실도 생각보다 넓고 좋아서 팀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때나 손님을 초대했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부엌도 따로 있는데 가끔씩 여러 가지 벌레들의 집합소가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저희가 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D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집이 넓어서 매주 주말마다 청소를 하는 데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죠 : ( 집이 넓고 먼지가 많다 보니 아무리 청소를 해도 먼지가 계속 생기는데, 가끔씩 1층에 살고 계신 집 주인 Auntie이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Auntie는 영어가 잘 안되시고 저희는 싱할라가 잘 안 되니, 의사소통은 잘 안되고, Auntie의 기대치와 저희의 기대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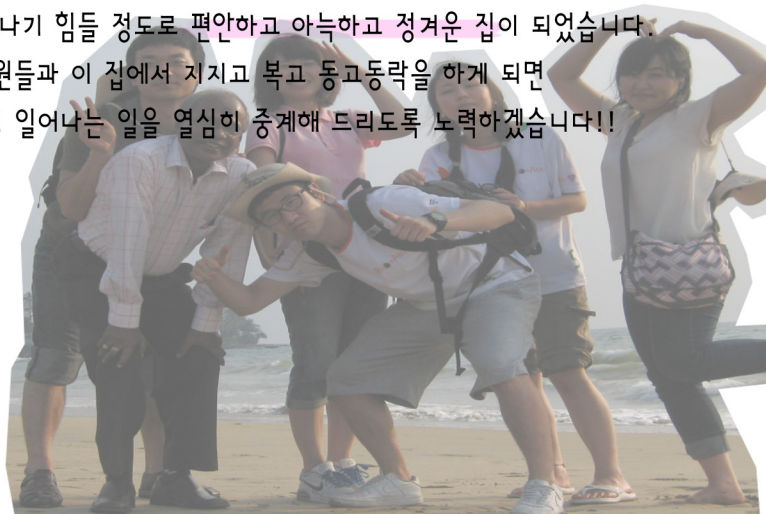
기준이 달라서 가끔씩 오해가 생길 때가 많아요. 특히 집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5명 나름대로의 집 규칙**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대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음식물 쓰레기는 언제나 아침에 버리기, 집으로 들어오면 환기 시키기, 화장실 후 화장실 뒷정리 하고 나오기 등등 저희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집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D 집 규칙을 정하기 전에는 공동으로 정해진 룰이 없어서 집도 많이 더러워지고, 책상에 아무 물건이나 돌아다니고 공동 물품도 조금 막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규칙을 정하고 나서 **한결 깨끗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어느새 진짜 내 집처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편안하고 아늑하고 정겨운 집이 되었습니다.

빠르면 빠르고 느리면 느렸던 한 달간의 시간, 앞으로 4개월이나 팀원들과 이 집에서 지지고 볶고 동고동락을 하게 되면

떠날 때 힘들어서 어떡하나 벌써 고민입니다. : ( 앞으로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열심히 중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랑카팀 파이팅!



## 뚝뚝(BAJAJ)



조한

안녕하세요~! 생활면의 '뚝뚝'에 대해서 말은 ARUNA(문보성)입니다~!~와~! 벌써 스리랑카에 상륙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저는 이번 생활면에서 뚝뚝에 대해서 쓰게 됐습니다.

뚝뚝이 무엇이나 하면은 바자지라고 하는 3륜 자동차를 말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3륜 자동차 같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스쿠터를 개조입니다. 이하 뚝뚝이라고 말할게요^^

뚝뚝은 아무래도 스쿠터를 개조한 3륜 자동차이기 때문에 속도 또한 제한이 있습니다. 시속 80km까지 가는데요. 80km까지 간 적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이 어수선하기 때문이지요. 기본적으로 차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추월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교통이 금방 혼잡해집니다.ㅠㅠ

스리랑카 또한 우측 좌측 통행이기 때문에 차량의 운전석이 우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뚝뚝의 운전석은 언제나 한 가운데에 있지요. 앞 좌석이 보조석 없이 운전석 하나이기 때문이에요ㅎㅎ. 그리고 뚝뚝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뚝뚝의 요금은 보통 Km를 따지지 않고 목적지 가지 가는데 100루피 정도 되는데 한화로 1000원 입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외국인한테는 거짓으로 금액을 부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팀은  
 되었을 경  
 내에서 먼  
 지역을 갈  
 하는데요. 모  
 전용 뚝뚝 기  
 다. 이름은  
 이고요 뒤에  
 붙여 엔써니  
 합니다. 정감  
 이 있어서 듣기 좋지요 ㅎㅎ



왼쪽부터 - 김진경, 이지윤, 배소라, 뚝  
 뚝 드라이버 엔써니 다따!! ^0^

주로 늦은 밤이  
 우나 모라투와  
 곳에 있는 활동  
 때 뚝뚝을 이용  
 라투와 YMCA  
 사가 있습니  
 '엔써니'  
 '다따' 를  
 아빠라고  
 라 친근감

마지막으로 뚝뚝의 장점을 말하자면 양 측면이 칼썩 뚫려있어서 시원하다는 것입니  
 다.

## REPLY

- 가끔 뚝뚝 기리 경쟁도 해요. 저번에 여자들끼리 탄 뚝뚝이 다른 뚝뚝과 경쟁한다고 역 주행 하는데 얼  
 마나 놀랐던지,,, ㅎㅎ
-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는 엔써니 다따의 뚝뚝을 생각하면, 거리 위에 또 다른 집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zeze
- 빵 파는 뚝뚝도 있어요. 아침마다 신나는 음악을 틀고 달려오는 빵을 실은 뚝뚝을 보고 라숨미가 외쳤습니다.  
 "빵차다!!!" ㅋㅋㅋㅋ

## How we live in Sri-lanka

라온아띠 5기 스리랑카 팀이 모라투와에 정착한 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함께 행동하고 생각하는 우리 5명, 말도 많고 탈도 많겠죠? 혈기왕성한 20대 5명이 함께 사는 모습,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라온아띠가 사는 모습을 '음식 이야기'이라는 항목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Let's go!



### 1. 음식 이야기

스리랑카 팀은 아침과 저녁을 숙소에서 직접 해 먹고, 점심은 YMCA나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서 현지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Rice&Curry나 현지화된 Fried rice가 그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숙소에는 밥을 해 먹을 식재료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매주 화요일 저녁, 현지 코디네이터인 Ashoka와 함께 일주일치 식재료와 각종 생활용품 등을 구입합니다. 사실 말이 간단해서 그렇지 일주일치 식재료를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쇠파이프도 씹어삼킬 수 있는 대학생 5명이기 때문이죠 ㅋㅋ. 또 계획을 잘 짜서 구입을 잘 했다 하더라도, '배고픈데 이거 해먹자!' 라는 무계획성 식사를 반복하다보면 어느 새 냉장고에는 성에만 가득하게 됩니다. 헐 이거 뭐야 무서워.....

그래서, 우리 스리랑카 팀은 일주일치 식단을 계획하고, 냉장고의 총책임자가 존재합니다. 이름하여 Food Manager! 우리 5명이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 역할이고, 매일 그 식재료로 식사를 준비하는 당번들은 2명씩 따로 뽑습니다. 즉 Food Manager는 일주일의 총책임자이며, 당번 2명들은 그에게 식재료 사용 허가를 받고 요리를 하는 것이죠.

사실 저희는 한국에서 한국 식재료를 거의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기 귀찮아서.....인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팀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스리랑카에 갔으면 스리랑카 음식을 먹어야 스리랑카 사람이 빨리 되는 것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현지 음식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듯 합니다. 스리랑카 음식이 상당히 향이 강하고 매운 편이어서, 화장실에 다녀오면 뒀가 아린 경험을 하는 것을 제외하곤 말이죠ㅋㅋ. 뭐다 그렇게 적응하는 것이죠. 다들 이제는 몸에서 커리 향이 제법 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다들 스리랑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중 하나인 "Ceylon tee"가 있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 차를 즐기지 않다 보니... 아무튼 이 나라에서는 차를

아주 즐겨 먹고, 티타임을 가지지 않으면 폭동과 파업이 일어날 정도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특히 라온아띠들은, 우유홍차인 끼리 띠(끼리는 싱할라어로 우유라는 뜻입니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미친듯이 달콤하면서도 한없이 부드러운 그 맛이 일품인데요. 스리랑카팀 배모 단원은 "끼리 띠는 나의 정력공급원"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더. 스리랑카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밥과 커리를 비벼서 그걸 다섯손가락 전체로 한움큼 움켜쥐고 입에 갖다 댄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입에 밀어 넣는 식이죠. 우리 라온아띠들도 가끔씩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한 단원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 편한 걸 한국 어른들은 왜 못하게 하는거야."

↳ Re: 끼리티는 역시 재레따 따따가 해주신 끼리티가 최고~!! 마셔본 사람만 아는 이 사실  
ㅍㅍ ,

↳ Re : 왜냐면 거기엔 마법의 가루(마일로=초코가루)가 들어가기 때문 ㅋㅋ

## 2. Kik Cola 이야기

스리랑카팀 이모 단원과 전모 단원은 콜라를 사랑합니다. "이런건 어느 놈이 만들어서 날 고생시키는가" 하면서 포악한 성격을 드러내면서도 이슬이 맺힌 시원한 콜라를 앞에 갖다 대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표정으로 초롱초롱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코카콜라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외골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리랑카에서 현지 콜라인 Kik Cola를 만났고, 새로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콜라에 별 관심이 없던 다른 단원들도, 남국의 강렬한 태양 앞에 타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열렬히 사랑중입니다.



↳ Re : 한국에 가면 키큰라 금단현상이 생길지도.....

# *Rashmi Note*

---

3.3.2011~ 4.10.2011  
IN SRILANKA

스리랑카에 오기 전 송실장님과, 이어나 간사님과 다른 선생님들에게서 잘 살고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프로젝트가 아닌 팀과의 생활 면을 많이 말씀 하셨을 때, 그냥 잘 살고 오면 되지 팀과의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이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아직은 프로젝트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 팀과의 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함께 살기 때문에 사소한 한가지에도 맞춰서 살아야 하며, 혼자 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내렸던 결정들조차도 팀원들과 이야기 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이 끝나고 팀원들과의 회의 시간, 사적인 대화에서 서로의 생각과 신념을 교환하며, 새롭게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각자의 장점이 너무 많은 스리랑카 팀원들이기 때문에 나이, 성별에 관계 없이 배울 것이 많은 친구이자, 스승이자 가족임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짧은 소감이었고, 아래에서는 이곳에 와서 경험하게 된 스리랑카의 물가와 우리가 사소하게 느끼게 된 벌레들과의 합숙에서 느꼈던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저희는 스리랑카에서 물건을 살 때, 시장 같은 곳에서 선반에 물건을 쌓아 놓고 팔겠지 라고 상상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처음 장을 봤을 때 놀랐던 것은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본다라는 사실~!

‘우리가 아직 스리랑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데려갔었을까?’ 라고 생각했었지만, 스리랑카에는 지역 시장도 많지만 그만큼 대형 마트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살 수 있다라는 것... 한 2주정도는 이 쾌적한 대형 마트에서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600원 하는콜라가 160루피라니~!

물건의 가격이 한국 가격의 0하나가 빠진 가격이기에 세상 물정모르게 돈을 썼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무렵 저희들은 정신이 뜨였지요, 이곳의 가격이 절대 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느껴던 돈에 대한 체감이 달랐을 뿐 가격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절~~대 싼 편은 아니었던 것이 었니다.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든 저희들은 허리띠를 아주 팍팍 쪼여 매고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스리랑카 현지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점은 이곳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사실 입니다.

몇 년 사이에 스리랑카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함께 장보러 갔을 때 가끔 현지 코디분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 마음껏 사달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가능한 빨리 수 있으면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던 모든 것들을 자제하고 살려니 불편한 것은 많지만, 그래도 불편해도 참고 살아보니 없어도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단 먹는 부분에서는 빼고 싶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시기이기에...)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편함을 위한 것들이지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 없어도 되는 물건이 엄청 많다라는 사실,,, 하지만 1개월이 지닌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하나, 둘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5명의 사람이 5개월간 함께 사는 것이니깐요.

그럴 때 마다 저희 팀은 그것이 정말 필요로 한가?

그것을 산다면 얼마나 쓸 수 있고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사게 됩니다.

예를 들면 후라이팬 하나도 팀 회의를 걸쳐서 할 정도로 저희는 깨알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음식과 생활면에서는 각자의 팀원들이 몇 장을 써도 모자라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지만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으로는 함께 사는 우리 **벌레**들의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무슨 월말 보고서에 벌레 이야기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저희 스리랑카  
팀은 벌레 하나에도 많은 재미를 얻고 깨알 같은 배움을  
얻는 답니다. ^^

처음 집에 왔을 때 곳곳에 많은 벌레들이 있었을 때  
벌레를 싫어하는 여자들은 기겁을 했답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상상도 정도로 집 안에 벌레가 많음)  
우리가 걷는 곳곳 마다 개미들의 천국이고, 가끔 손바닥  
만한 거미들이 나타나고, (거미는 우리 팀 남자들도 많이  
무서워 한답니다. 쫓쫓...) 부엌에는 “후나”라는 작은  
도마뱀 가족의 안식처도 있답니다.

하루는 저녁에 음식을 하다가 가스레인지 옆으로 떨어진  
음식을 개미들이 옮기는 과정을 보고 개미들이 대단하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탐색대가 나와 음식을  
관찰하고 순식간의 많은 개미들이 나타나 협동해  
운반하고 몹시 클 경우 음식을 자르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자른 음식을 순식간에 옮기고(개미들의 음식  
옮기는 속도는 정말 정말 빠릅니다.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사실,,)

자신의 집 입구에 들어가지 않으면 방향을 틀어서  
가져가는 모습을 저희 팀은 조용히 관찰하면서 개미들을  
우리의 스승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개미=스승님**으로 불립니다.

오늘도 스승님들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후나”라는 작은 도마뱀이 무엇이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정말 말 그대로 손가락 만한  
작은 도마뱀과 함께 부엌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 부엌에 들어갈 때 놀랐고, 내보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얼마나 귀엽던지,...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집에 나타나는 하얀색 후나는  
깨끗한 집 후나라고 합니다.

함부러 죽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 현지 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작은 벌레와 함께 공생하면서 서로에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벌레도 저희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겠지요????)

얼마 전에 제 캐리어에 있는 개미나 가끔 식당밥에서  
보이는 개미는 저희한테는 애교일 정도입니다.

그밖에 많은 벌레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너무 많아  
이쯤에서 줄일까 합니다.

다음달에는 모기 특집은 어떨까 작은 생각을 ^^  
한달 동안 너무 사소해지긴 했지만, 사소한 것을  
통해 작은 것에도 재미를 느끼고 행복해 하며,  
보고 느끼는 중 입니다. 앞으로의 저희 스리랑카 팀  
이야기를 많이 봐주시고요. 사소한 경험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ㅋㅋㅋ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하루 개미를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그들도  
우리 인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테니깐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쭉~~~~ 잘살겠습니다.

# 스리랑카 모라투와에 대해서...

우리팀이 살고 있는 모라투와는 수도 콜롬보 남쪽에 있는 도시로, 스리랑카에서 3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18만명정도(2009년 추정)의 인구가 살고 있어서 체감상으로는 우리나라 인천같아요. 처음에 이 곳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발달된 도시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블로그에 올라온 정보들은 여행자의 입장이라 스리랑카의 개발되지 않은 부분만 보여지고 있는 경향이 큼니다. 인터넷을 100% 신뢰하지 마세요 ㅠㅠ)

은행에 가면 완벽한 영국 억양을 들을 수 있고 콜롬보에 가는 기차를 타면 해변을 따라 달리며 시원하게 펼쳐진 수평선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의 양면은 이 아름다운 도시를 피해가지 않았어요. 푸른 바다를 보다보면 해안선을 따라 밀집되어 있는 판자촌에 눈길이 가고, 화려한 건물들 사이사이에 걸인들이 주저앉아 돈을 구걸하곤 합니다. 치안이 좋지 않아서 항상 남자팀원들 또는 모라투와Y 직원들과 다녀야하고 해가 떨어지면 집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뿐 아니라 현지사람들도 위협을 느끼기도 해요. 2주전쯤에는 Digorolla Garden 학생 중 한 명이 길 가다 뒤에서 누군가 내려치는 바람에 한쪽 어깨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도시를 뒤덮고 있는 수많은 쓰레기를 보면 저절로 한숨이 쉬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우리가 쓰레기를 줍고 있을 때도 바로 옆에다가 쓰레기를 떨어뜨리곤 합니다. 우선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고, 환경의식이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기사들도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가장 많이 공감하고있구요.

그리고 시내도로를 고속도로 마냥 질주하는 수많은 차량들, 길 건너는 사람한테 울리는 경적소리는 정말 위협적이예요. (한국에서 들었던 경적소리는 그냥 병아리 삐약소리ㅋ) 버스에서 타고내릴 때는 가끔 그냥 달리는 채로 사람들을 싣고 내리고 그 사이사이로 오토바이가 비집고 들어와서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끼리 길을 건널 때는 매번 길을 건너는 타이밍을 놓쳐서 한참 기다리게 됩니다. 현지인처럼 슬쩍 눈치보면서 길을 건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배기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들이 많아서 차가 붐~하고 달리면 그 뒤를 따라서 까만 안개가 몰려옵니다. 하얀 옷을 입으면 금새 더러워지고 먼지도 많이 날려서 기관지가 약해집니다.

한국에서도 저는 아토피와 습진으로 고생했었는데 이 곳에 와서 너무 심해졌어요. 손으로 커리를 먹으면 손가락이 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손갈로 밥을 먹고 싶은데 습진을 내보이기는 싫은 마음에 그냥 손으로 밥을 먹고나면 항상 몇시간동안 아릿아릿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이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가끔씩 내가 이 곳에 살고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노을이 질 때면, 정말 핏빛 노을이 하늘을 새빨강게 물들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황색, 노란색 빛에 반사되고 그 광경에 넋을 잃게 됩니다. 도로에는 매연이 있지만 골목 사이사이에는 코코넛 나무가 멋들어지게 서있습니다. 새벽에 새소리가 시끄러워서 나가보면 다람쥐가 꼬리를 흔들면서 새소리를 내면서 깜짝 놀라 달아나고, 빵을 가득 실은 똑똑이 으쌰으쌰 노래를 부르며 올 때는 내가 모라투와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빼놓을 수 없지요. 스리랑카의 아이들은 정말로 천사들이에요. 눈도 크고 얼굴도 작아서 미인상인데, 항상 치아를 환히 드러내며 밝게 웃어줍니다. 성격도 적극적이어서 먼저 다가와줄 때가 많아요. 이 곳은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 받게되는 곳입니다.



## Recycle bins in Moratuwa station

이 프로그램은 3월말부터 4월초에 걸쳐 Logos Hope에서 파견된 사람들과 함께 진행한 모라투와 YMCA의 환경개선사업 중 하나로서, 사실 이 작업이야말로 우리 라온아띠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여 완성한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분리수거가 생활화 되어있지 않은 스리랑카에서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구별 없이 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길거리에 휩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라투와 YMCA에서는 시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 하나인 모라투와역에 재활용쓰레기용 통과 일반쓰레기용 통을 2개씩 한 쌍으로 묶어 4군데에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라온아띠들은 그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업을 도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라온아띠들은 8개의 통에 'Recycle'과 'Plastic&Polythene', 이 2개의 문구를 4개씩 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명시성이 생명이었던만큼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라온아띠들은 그것을 훌륭하게 해 냈습니다.

처음에, 하얀색 스프레이를 뿌리기 위해 블록을 만들었구요. 그걸 통과 뚜껑에 뿌렸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죠.



완성된 8개의 통들입니다.



그 다음, 그것을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Logos Hope 사람들과 같이 Moratuwa역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8개의 쓰레기통이 Moratuwa 시내의 환경이 깨끗하게 바뀌는 것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팀이 아닌, 라온아띠들 각자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다들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듯 합니다. 라온아띠들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경극: 라온아띠가 파견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스리랑카 현지에서는 빈 병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쓰레기를 수거할 때 분리해서 수거하는 형식이 아닌 쓰레기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분류하는 형식을 따르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쓰레기 정상화를 위한 라온아띠와 모라투와의 작은 노력이 언젠가는 환경을 웃게 만들지 않을까요?

소라: 정말 썼다 지웠다 하는 작업을 얼마나 반복했던지 ㅋㅋ. 이제는 무엇을 지우는데 자신 있습니다. ^^

신나로 손을 씻어 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마~~. 모든 조원이 스프레이를 거의 마시다시피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이라서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잘 뿌렸는데 흘러 내리고 번지고, 그래서 지우고, 스프레이를 뿌리기 위해 다시 글자도 파고 조금은 힘들었지만, 완성품을 가져다 놓았을 때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주로 태웁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필요없다라고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분리수거 형식이 좋아 이곳 사람들도 그랬으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들도 나름 현실에 맞게 적응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지만 플라스틱, 폴리티크 이런 것은 태우면 안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분리수거를 알게 되거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몇 명만 실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 주위는 변화될 것이고 그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이곳 스리랑카에서 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